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6년 3월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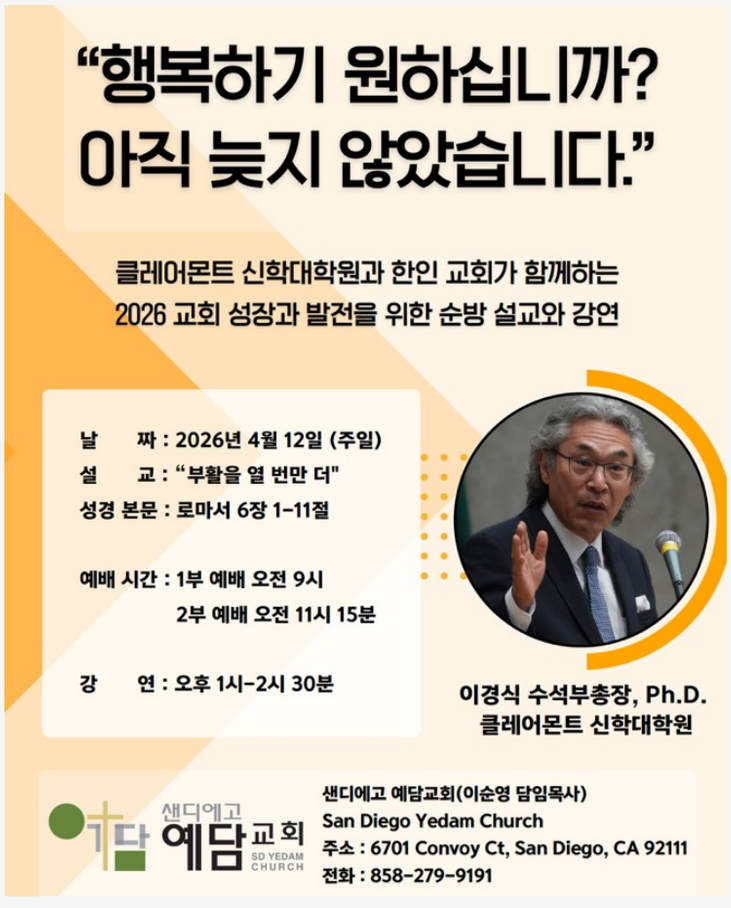
이경식 수석 부총장, 2026년 4-6월 남가주 한인교회 순방 설교 및 강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이하 CST) 국제협력처는 작년 4월 강남순 교수를 모시고 CST 캠퍼스에서 한인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첫 한국어 공개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강좌는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공개 강좌가 매년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CST는 한인 교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개체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경식 수석 부총장이 남가주 한인교회를 순방하며 설교와 강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식 수석 부총장은 이번 순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교회든 기쁜 마음으로 방문하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사역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강사비는 CST 한인 학생 장학금으로 적립될 것입니다.”

이번 강연의 제목은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입니다. 이 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강연은 행복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제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신앙의 교훈과 삶의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순방 일정:

4월 12일: 샌디에고 예담교회 (이순영 목사)
5월 3일: LA연합감리교회 (안정섭 목사)
5월 17일: 예수동행교회 (이상영 목사)
5월 24일: 나성금란교회 (전재홍 목사)
6월 14일: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
6월 21일: 윌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7월 12일: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추가 가능 일정:
아직 방문이 가능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9일
5월 10일
5월 31일
6월 28일

순방 설교 및 강연에 관심이 있는 교회와 목회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수석 부총장
연락처: 626-616-2478
이메일: slee@cst.edu

한인학생회 졸업식 및 종강모임

종강모임 : 2026년 5월 18일 (월)
장　　소 : 추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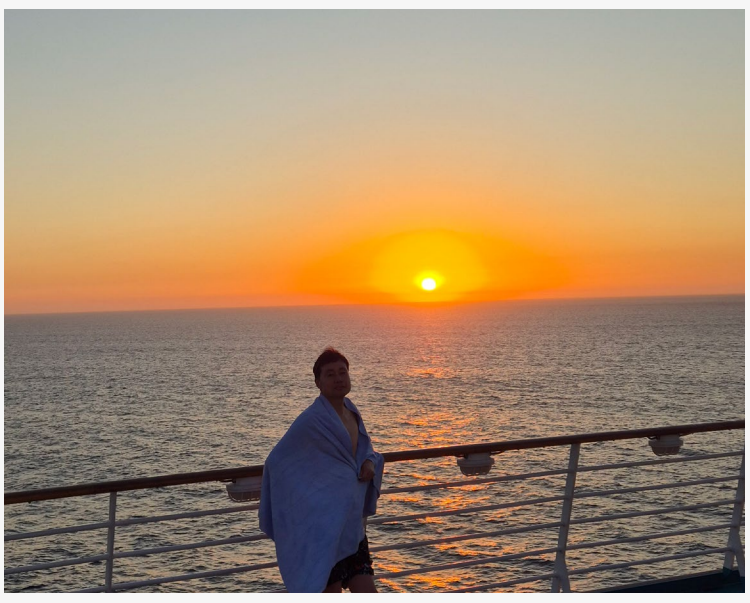
졸 업 식 : 2026년 5월 19일 (화) 오후 3시
장　　소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문　　의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국제협력처
kef@cst.edu

정민혜 학생, DPC 수학여행을 다녀오다

2026년 2월 2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4박 5일간 멕시코 크루즈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어 2월 7일(토)에는 CST를 방문했고, 2월 8일(주일)에는 동양선교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며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미국을 방문하여 이경식 부총장님과 김지훈 교수님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낯선 일정 속에서도 언제나 배려와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두 분 덕분에 이번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함과 감사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정민혜 학생과 남편 김영두 씨가 DPC 멕시코 크루즈 수학여행 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멕시코 크루즈 일정 가운데 카탈리나 섬에서는 집라인과 카트 투어를 통해 섬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몸소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다와 하늘, 바람이 어우러진 그 순간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멕시코 엔세나다에서는 말타기 체험과 라부파도라 관광을 통해 또 다른 즐거움과 생동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느낀 감동과 자유로움은 이번 여행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로 남았습니다.

크루즈 여행 동안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그 자체로 큰 선물이었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여정은 한결 여유롭고 안정적이었으며, 매일 저녁 이어졌던 만찬의 시간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음식과 대화가 어우러진 깊은 교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여행의 하루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진: 정민혜 학생과 남편 김영두 씨가 CST를 방문하고 동양선교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

LA로 돌아와 부총장님 댁에 머물며 CST를 방문한 시간 역시 매우 뜻깊었습니다. 부총장님의 친절한 안내로 사모님과 함께 교정을 거닐며 사진을 찍고, 학교 시설 곳곳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문과 삶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을 체감하게 해 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자유 관광의 여유까지 배려해 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방문이나 일정의 연속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과 신뢰, 그리고 진심 어린 나눔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 여정이었습니다.

이경식 부총장님과 사모님, 김지훈 교수님과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의 환대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경험하고 누리는 수학여행이었습니다. DPC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수학여행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를 CST DPC 과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최상의 것으로 축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문화 영어권 사역을 섬기다: 윌셔 연합감리교회 박성환 목사 이야기

〈사진: 박성환 목사, Ph.D. '24〉

저는 윌셔 연합감리교회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성환 목사입니다. 2024년 5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이하 CST)에서 신약학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이곳 윌셔 연합감리교회에는 2024년 7월에 파송을 받아, 현재 Multi-Cultural English Ministry (MEM)를 섬기고 있습니다.

1세대 한인 목회자로서 영어권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과연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는 반드시 은혜도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기도와 겸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MEM 회중은 필리피노, 흑인, 라틴,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름 그대로 다문화 영어권 사역이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저는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날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 회중뿐만 아니라 한인 회중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가운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뜻깊게도, 이 교회에는 저와 함께 클레어몬트의 추억을 나누는 동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성 목사님도 CST 동문이시며, 교육부를 담당하는 송민환 목사님 역시 저와 같은 해인 2024년에 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신 동문이십니다. 같은 학교에서 신앙과 학문을 함께 길어 올린 동문들과 한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거리입니다.

윌셔 연합감리교회는 LA시에서 Historic Building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오랜 전통과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식과 음악 콘서트, 영화 촬영 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와 신앙,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공간에서 사역할 수 있음에 또한 큰 감사와 책임을 느낍니다.

CST는 저에게 단순한 배움의 터를 넘어, 인생의 두 번째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학교가 Los Angeles로 이전한 지금도, 저는 여전히 CST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올해는 큰 딸이 타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소명, 가정과 삶이 함께 어우러졌던 시간이 CST에서 쌓여 왔습니다. 그래서 '클레어몬트'라는 이름은 제게 언제나 따뜻하고 친숙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CST에서의 배움과 형성은 지금도 제 목회와 삶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과 공동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CST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동문으로서 변함없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목회의 여정 - CST 동문 이영성 목사

<사진: 이영성 목사, M.Div. '09>

저는 2005년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이하 CST)에 들어가 2009년에 M. Div 학위를 받은 이영성 목사입니다. CST 한인 뉴스레터에 실릴 동문 소식 원고를 부탁받고 바쁜 목회로 잊고 있었던 CST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써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시작한 CST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느라 10여년 영어와는 담을 쌓고 살다가 영어로 듣고 말하는 수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간은 늘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이 성경구절을 암송하며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9)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저의 순서가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풀타임 신학생으로 가장 노릇을 하려니 이런 저런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장학금을 받게 되고 교회 사역을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로렌 하이츠에 있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습니다. 새 가족 사역 담당자로서 새 가족 사역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또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영어 회중 담임을 맡아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중은 백인들과 필리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한국적인 영성이 미국 목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회원 안수를 받고 개척 교회인 LA 복음 교회로 파송을 받아 6년간 섬겼고, 그 후 하와이 감람교회로 파송을 받아 또한 6년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윌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윌셔 교회는 현재 원로 목사님이신 이창순 목사님이나, 부교역자인 박성환 목사님과 송민환 목사님 모두 CST 출신입니다. 그리고, 청년부와 찬양 담당인 박태진 전도사님도 올해 가을학기에 CST 입학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두 CST 식구들이다 보니 학교의 명예를 걸고 더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2027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한국어)
WASC & ATS 승인: 글로벌 하이브리드 신학 교육

이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100% 원격 수업 인증으로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 1월 겨울학기: 한국에서 대면 현장 집중 수업 진행
- 7월 여름학기: Zoom을 통한 실시간 원격 집중 수업 진행

미국 내 대면 수업 없이 여행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자에 대한 부담 없이 신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글로벌 하이브리드 신학 교육 특징:

- 현장 중심 학습과 원격 학습의 통합
- 유연한 시간 관리와 학습 환경
- 뛰어난 교수진과의 실시간 상호작용

CST에 입학하여 새로운 신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험해보세요!

2025-2026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 기준 -

이경식 부총장
육성수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육성수 담임목사)
이종오 박사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강신욱 목사
윌셔연합감리교회
박성숙 사모
임용빈 장로
이창순 목사
이삼휘 장로

*성함은 기부일자 순 입니다.

기부총액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6일 기준): **$89,920**

- KEF 잔액(1990.03 - 2026.03): $2,511,654
- KLS 잔액(2018.10 - 2026.03): $869,918
- General Fund(2024.03 - 2026.03): $13,728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 기준 -

개인 후원	단체 후원
이병준 회장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이상영 목사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헌 목사)
	윌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챤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본 명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입니다.

기부총액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3일 기준): $14,200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